

2023. 10. 17.(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300-5505
공원여가과장	강현주	300-5616
공원여가정책팀장	김주연	300-5573
관련 누리집	<a href="http://yeyak.seoul.go.kr">http://yeyak.seoul.go.kr</a>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 월드컵공원에서 산불피해목으로 만든 대형곰을 찾아보세요

- 서울시, 환경생태공원인 월드컵공원의 특성 담아 새활용 문화전시(10.14~11.15)
- 산불피해목으로 만든 작품 재해석(대형 곰 ‘Ash Bear’, 시슴 형태 ‘숲의 정령’)
- 하늘공원에서 서울역새축제와 정원박람회도 진행되고 있어 함께 볼거리 풍성

-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과거 매립지였으나 환경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월드컵공원의 장소적 가치를 나타낸 새활용 작품전시인 ‘제1회 월드컵 새활용 문화전’을 11월 15일까지 선보인다.
- 월드컵공원 하늘공원(마포구 하늘공원로 95)에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22회 서울역새축제(주제: 역새와 함께하는 10월의 러브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3 서울정원박람회’가 운영되어 서울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 이 기간 동안 월드컵공원의 장소적 가치를 전달하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는 전문 예술작가진과 함께 새활용<sup>1)</sup> 기법을 활용한 ‘공원 보다’(새활용 환경조각전)를 마련했다.

1) 새활용(Upcycling) :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 ‘공원 보다’(새활용 환경조각전) : 하늘공원 원형광장 내 산불피해목으로 만든 곰, 사슴 형태의 새활용 작품 전시(10.14.~11.15.)
  
- 이번 ‘공원 보다’(새활용 환경조각전) 작품은 서울시와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산림청이 공동 주최한 <Let’s Forest 2023, 서울>에서 전시 하였던 작품 일부를 리터칭,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산불피해 지역(홍성, 강릉, 동해)에서 수집한 산불피해목을 주요 소재로 한 곰 모양 형태의 ‘Ash Bear’(1점)과 사슴 모양 형태의 ‘숲의 정령’(2점)을 작품을 이동 전시하는 형태로 억새와 어우러져 조형물이 자연스럽게 숲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 산불피해목과 철재로 만들어진 Ash Bear는 “숲에 사는 동물 중 누구나 좋아하는 곰을 형상화하여 버려지는 나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의 의미”를 전달한다.
  - 산불피해목과 철재로 만들어진 사슴 형태의 ‘숲의 정령’은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된 숲과 화재로 인해 불에 타고 버려진 나뭇가지가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주는 기회”를 나타내고, “나뭇가지는 스스로 여러 모양의 형태로 숲의 정령이 되어 숲을 가꾸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 전문 조형작가 7인이 참여한 이번 새활용 문화전은 11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억새축제(10.14.~10.20. 09:00~22:00) 외 기간(10.21.~11.15.) 동안 하늘공원은 08:00~20:00까지 하늘공원을 방문한 방문객 누구나 자율 관람 가능(무료)하다. (문의 :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고 ☎300-5574)
  
- 월드컵 새활용 문화전을 기획한 예원예술대학교 정희석 교수는 “이번 새활용 문화전은 나무, 유리 등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새

활용 취지를 살리고 자원순환 문화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전시로 환경을 보전하고 생활 속 재활용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며 인터뷰하였다.

- 서부공원여가센터 이용남 소장은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조형물을 보고 즐기며, 월드컵공원이 어떤 곳인지를 더 잘 알고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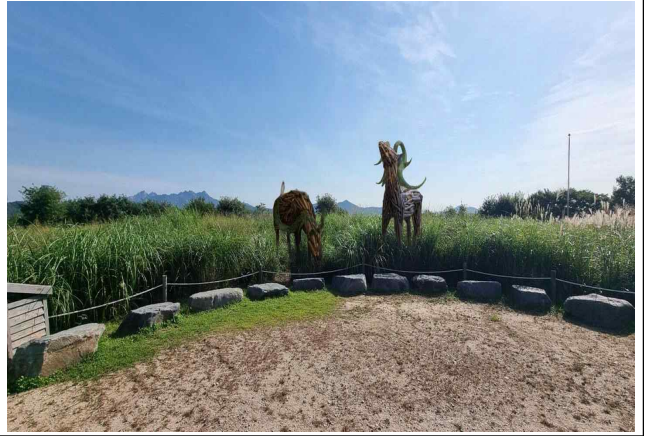
※ 붙임 : 2023년 월드컵공원 재활용 문화전 포스터 및 사진. 끝.

〈붙임자료〉

## 2023년 월드컵공원 새활용 문화전 포스터 사진



2023년 월드컵공원 새활용 문화전



새활용 문화전 환경조각전(Ash bear, 숲의 정령)

## 애쉬베어 ash bear

산불피해목, 철재  
3,000x3,200x3,500mm  
2023

정창이, 오종현, 이기라, 금보성  
Assistant - 신승훈, 정준혁, 표민성

숲에 사는 동물 중 누구나 좋아하는 곰을 형상화하여 버려지는 나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인재로 인한 산불 등으로 쓸모 없거나 버려지는 나무를 새롭게 디자인, 예술적·환경적 가치를 높여 재탄생시킨 새활용(Upcycling) 작품으로, '새활용'이란 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원 순환의 방법의 하나로, 이번 전시를 통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새활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산불피해목은 현재 대부분 연료화로 소비되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작품은 산불 피해 지역인 홍성, 강릉, 동해 세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온 산불피해목을 '새활용'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예술적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 숲의 정령

산불피해목, 철재  
700x2,000x1,800mm  
700x2,400x2,600mm  
2023

정창이, 오종현, 이기라, 금보성  
Assistant - 신승훈, 정준혁, 표민성

'인간의 욕심으로 훼손되고 망가진 숲' 화재로 인해 불에 타고 버려진 나뭇가지가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나뭇가지는 스스로 여러 모양의 형태로 숲의 정령이 되어 숲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본 작품을 통해 우리가 자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쉽게 훼손하는지 반성하며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산불피해목은 현재 대부분 연료화로 소비되거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작품은 산불 피해 지역인 홍성, 강릉, 동해 세 지역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온 산불피해목을 '새활용'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예술적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새활용 문화전 환경조각전(Ash bear, 숲의 정령) 작품 설명



월드컵 재활용 문화전 스케치 모습